

# 보 도 자 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       |                 |          |                                     |
|-------|-----------------|----------|-------------------------------------|
| 배 포 일 | 2020년 4월 30일(금) | 매 수      | 총 3매                                |
| 보도일시  | 즉 시             |          |                                     |
| 작 성 자 | 홍보팀             | 담당 정 술   | (담당) 02-2258-8084                   |
|       |                 | 팀장 주 희 정 | (팀장) 010-4110-0095<br>010-7228-7761 |

제목 : 가톨릭중앙의료원, SKT와 손잡고 의료 영상 판독 AI 개발

## 가톨릭중앙의료원, SKT와 손잡고 의료 영상 판독 AI 개발

-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기술 개발 및 솔루션 사업 추진 박차 -
- 의료 영상 판독 AI, Vision AI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 AI 개발할 것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장 문정일, 이하 CMC)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이하 SKT)이 첨단 의료사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 개발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기술 개발 및 솔루션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인공지능 모델 및 솔루션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 진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솔루션 사업화 ▲행동 인식 기술 및 상황 인식 기술 사업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CMC와 SKT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SKT는 메타러너(AI 자동화 플랫폼, Meta Learner) 등의 AI 역량을 바탕으로 CMC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 AI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한다.

산하 8개 부속병원, 6,300여 병상 보유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CMC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nU2.0)을 기반한 1,500만

명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개발된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은 CMC 산하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의 관리 하에 검증 단계를 거쳐 완성도를 향상할 것이고, 양 기관은 이를 사업화 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된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 단축으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병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Vision AI 솔루션을 개발, 실증할 계획이다. 실시간 안전 대응이 중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환자 및 발달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받고, AI CCTV를 활용한 돌발 상황 대응 솔루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의료분야에 AI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 간 전반적인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등 H/W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 의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하는 ‘의료 AI Full-Stack 솔루션’ 개발 또한 검토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 김대진 원장은 “SKT와 함께 하는 이번 협약이 AI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영상 데이터 웨어하우스(CDW)를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의 CMC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궁극적인 환자치료 증진을 위해 SKT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김윤 CTO는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AI 자동화 플랫폼, 5G MEC, Cloud, 양자암호통신 등 SKT가 축적해온 AI와 ICT 기술을 바탕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

문 의료진과 함께 AI 헬스케어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MC는 1,500만 명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CMC nU CDW(Clinical Data Warehouse,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오픈한 바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스마트병원 선정, 비정형 의료데이터 통합 뷰어 솔루션 CMC nU EDP 개발 등 의료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중이다.

전 산하병원 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을 출범한 CMC는 앞으로도 미래 의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사진 있음).

#### [사 진]

